

신종 코로나에 제주경제 '휘청'... 대책은?

발병 후 관광객 감소·소비심리 위축 등 후폭풍 제주도,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 오는 13일 출범 민생경제 활력 과제 발굴 역할... 7개 분과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오는 13일 출범한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 활동에 나서는 협의체의 역할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관광산업·건설경기 활성화·1차산업·지역사회·사회복지·기획조정분과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관련 기관·단체, 출자출연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현황 분석과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협의체는 출범과 함께 분과별 피해 상황 파악과 단기·장기 과제, 정부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 대응에 주력하고, 이후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총 입도객은 1만 993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7848명)보다 47.3% 줄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 8959명으로 전년에 비해 42.6%, 외국인인 976명으로 79.7% 감소했다.

도는 분과별 운영상황과 결과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총괄 조정회의를 통해 분과별 제시된 과제들 중 우선순위 조정, 예산재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경기가 나빠진 이후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렵다"면서 "하루라도 빠르게 위기에 따른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가미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에 만

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의체 조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지시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즉시 이행과제와 제도 개선, 정부 제안 과제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문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융자성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융자성 기금은 3046억 8693만원으로, 이 중 변경사용이 가능한 241억 100만원을 신속히 변경해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재생사업' 공모

제주도, 17일까지 공개 모집 간판정비 등 소규모 사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체 활동거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담장허물기(주차면수 확보 등)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는 3억원이며 사업별 1억원 내외로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 활동을 통

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행정시에 제안하고, 행정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계획 수립·신청과 더불어 사업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조직이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등재돼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행정시(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재생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월 중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수놓음 육아나눔터' 확대 도, 올해 말까지 43곳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16년 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20억원이 투입돼 36개소의 수놓음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3개소 조성을 목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되며, 나눔터의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운영비(100만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수놓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신규사업(1억원)으로 조성된 지 2년이 넘는 나눔터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및 장난감, 비치물품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1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놓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새 역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10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진행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하자 봉 감독(가운데 오른쪽)과 출연배우·제작진 등이 환호하고 있다. 기생충은 이날 작품상과 함께 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오르며 아카데미의 역사를 다시 썼다. >>관련기사 11면.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되고, 다음 달 3월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신종 코로나' 공·항만 철통 검역

국내선 체크 과정에서 5명 발열 확인... 모두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내 유입 원천 봉쇄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과 제주항발열감시 체크 과정에서 총 5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제주도 119 종합상황실 구급차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모두 단순 발열로 확인됐다.

현재 발열감시 카메라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동쪽과 서쪽에, 제주항에는 연안터미널(2부두)과 국제터미널(7부두)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운영 인력은 4개조·20명(행정 8, 의사 2, 간호인력 10)으로 구성됐으며 오전·오후 2개조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의심자를 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7.5℃ 이상의 발열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선 출입문 통과 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현장의 간호·의사 인력을 통해 열을 재측정하고 진료 및 상담이 이뤄진다.

입도객 대부분이 열을 재측정하고 문진상담 과정에서 귀가조치가 이뤄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존재할 경우엔 119의 협조를 통해 특수구급차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게 된다.

현재 도내 4개 소방서(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시 전담구급대 지원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숙소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만에서는 간호 인력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역학조사관과 통화 진료가 이뤄진다.

도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발열감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발열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과 환자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도내 인문사 최초 '에디' 품질인증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국ABC협회 2019년 부수인증

한라일보

[발행부수 1위]
[유료부수 1위]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제주도내 최다 15회 선정]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19년도 한국ABC협회 일간신문 부수 인증결과
제주도내 발행부수 1위, 유료판매부수 4년 연속 1위를 석권해
명실상부한 '제주의 대표 신문' 인증을 축하합니다.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성숙 외 위원일동